

김지사, 광양서 민선 8기 후반기 첫 민생 행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소개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지점장 활동 애로사항 수렴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민선 8기 후반기 첫 민생 행보로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지점장으로 밀착 소통에 나서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승주 전국상인연합회 전남 지회장과 광양·나주·고흥·장흥 등 시·군 상인회장, 중마시장 인근 소상공인 20여명이 함께 참석해 김 지사와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지점장 활동은 지난달 25일 목표 청호시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상인들은 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상인들은 창업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더 폭넓은 경영안정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내수시장 침체, 고금리 위기에 깊이 공감하며 전남도에서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78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은 ▲1월부터 금융비용 감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

원 규모 1천500억원으로 확대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정책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및 최대 35% 이차보전 ▲전남신용보증재단 기한 연장 보증수수료 0.7% 인하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50억원 규모 공급 등이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공공배달업 할인쿠폰과 홍보비용으로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담 및 애로사항 청취 이후 김 지사는 금융버스 1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소상공인과 1대1 금융상담 시연에 나섰다.

광양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물가 상승으로 매출은 떨어지고 원가 부담은 점점 커지니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은행 금리도 너무 높아 대출받기도 무서운데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하도록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비 촉진을 위해 중마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원가 상승 및 외식인구 감소



1일 오전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양 중마시장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상담 업무를 체험하는 등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소통활동을 진행했다. <전남도 제공>

로 타 업종보다 경영 위기가 심각한 음식점업 종사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금융버스 가드림'은 전통시장이나 금융 소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해 보증·대출·컨설팅·재무상담에 이르는 통합 민원서비스를

한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 지금까지 28개 업체에 62억원의 보증·대출을 지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경실련, 민선 8기 강기정號 2년 시정 평가

민간공원·도시철도 아쉬움...소통은 긍정적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취임 2년 동안 민간공원·도시철도 등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소통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선 8기 강기정호 2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강 시장의 장점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돌봄서비스를 상향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 ▲관심과 지원을 강화한 자립준비청년 정책 ▲살마리를 풀기 시작한 현안 5+1 ▲광주에서 최초로 사전공공기획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북동 재개발 사업 ▲공공택지지구 지정 등의 불가 입장을 밝힌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 문제 ▲군공항 이전의 계기를 마련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중전부지 개발 특별법 제정과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자율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추진 등에 대해 호평했다.

경실련은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지난 1년은 임기 첫 해 보다 소통하기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다"며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소통하는 광주는 (ON), 정책소풍, 월요대화 등을 진행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산IC 매물 비용과 시간 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회피했던 점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의 선분양 전환을 허용하고 고분양가에 동조한 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협약서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임기 2년 동안 산하기관장 인사에 보은 차원에서 주로 측근을 임명한 점 등은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경실련은 "강 시장이 늘 이야기하는 시민의 발이 돼 줄 것이라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약속한 2020년까지의 완공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공사 현장 인근 상인들에게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경 기자

"인구 위기 극복" 道, 법·제도 개선 힘쓴다

인구감소특별법·국가 출생수당·광역비자 등 7대 과제 발굴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7대 법·제도 개선 과제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사회보장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 ▲숙련가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다.

무엇보다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외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

/양시원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비자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만큼 지방 주도의 외국인 이민 정책을 이끌어낼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광역비자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7대 제도 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Worldwide Partner

PARIS 2024 공식 스폰서 안마의자

REAL PRO MAN1

파리 항공권 증정 대한민국 승리기원 EVENT

기간: 2024.06.28 ~ 2024.08.11

1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 50만원 할인
- 20만원 상품권 + 무선 청소기 WDD91 증정

2 MAN1 구매고객 추첨 증정

1등

파리 항공권 티켓 2매

1명

2등

헤어드라이어 EH-NOJ

10명

※이벤트 상세내용 www.panasonic.kr/event 참조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